

재래시장 “여름장사 참 힘드네”

광주 주요 시장 냉방시설 없어 소비자 대형마트 몰려 열대야에 야시장 방문도 뜰...매출 20%~70% 줄어

때 이른 폭염에 광주·전남 재래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5일 이 지역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전남 15개 시·군은 폭염주의보(33℃)가 발령돼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뜰 수밖에 없었다.

또 광주, 광양, 목포, 여수, 순천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그나마 사람이 몰리던 야시장의 인기도 사들해졌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재래시장들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년 상인들을 유입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위 앞에서 전혀 힘

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양동시장 등 광주지역 재래시장에 따르면 더위가 본격화된 지난 18일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해 시장별로 20~70%가량 매출이 줄었다. 이처럼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시장이 해가림 시설만 설치됐고 별다른 냉방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오후까지 계속되는 무더위 탓에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양동당전길시장상인회 최영래 회장은 “해마다 여름이면 매출이 급감하는데 울

무더위는 더욱 심해 장사를 아예 못하는 곳도 많다”면서 “여름이면 냉방시설이 잘 돼 있는 대형마트로 손님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야채의 경우 강한 햇빛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이 크고, 구입한 야채를 제때 팔지 못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변질하기 쉬운 어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여름은 “지옥 같은 시간”이다. 얼음을 채우고 냉장보관을 하는 등 어류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름철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광주대인시장 한 상인은 “고통어 미세 먼지 파동으로 가목이나 장사가 되지 않

는데 무더위마저 빨리 찾아와 생선이 잘 팔지 않는다”면서 “매일 물건을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파는 생선이 오히려 싱싱한데도 여름철에는 거의 장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장의 상가에 따라 많게는 70%가량 매출이 줄어든 곳도 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불을 써야 하는 재래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불고기거리로 알려진 광주서부시장상인회 임경환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최근 매출이 20~30%가량 줄었다”면서 “평소 저녁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열대야 탓에 저녁에 아예 손님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에너지산업 기술이전 설명회 지난 22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크리에이티브존에서 열린 '2016 에너지산업 기술이전 설명회'에서 참가기업들이 기술상담을 받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에너지 기술이전 설명회 호응 광주테크노파크 180건 상담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는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임정만)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크리에이티브존에서 개최한 '2016 에너지산업 기술이전설명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지역 기업의 에너지산업 기술도입 및 기술경쟁력 확보차 열린 이번 행사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유수의 에너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상담으로 진행됐다. 총 150여명이 참석해 180여건의 기술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 기업의 에너지산업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 한전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 이후 에너지 사업분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전, 자동차산업 기업들의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출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상담기업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특허활용계획서를 받아 기술별 기술이전 심의를 거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정찬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한전과 전기연구원의 우수한 기술들이 지역기업으로 이전돼 광주가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고 국내외 에너지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2.32 (+1.98) 금리 (국고채 3년) 1.23% (0.00)
- ↓ 코스닥 704.96 (-2.58) ↑ 환율 (USD) 1137.00원 (+2.60)



한전, 드론 띄워 철탑 전력설비 점검

시간 90% 단축·년 75억 비용 절감

한국전력(사장 조환이)이 8월부터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전력 통신 설비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방법은 드론이 사람을 대신해 철탑에 설치된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OPGW·Optical Ground Wire)을 촬영한 뒤 파손과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OPGW는 한전의 전력계통 제어에 쓰이는 핵심 통신설비로 주기적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설비는 대부분 산악지역에 설치돼 사람이 직접 올라 점검할 수밖에 없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전은 드론 활용시

이같은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실시한 시범점검 결과 드론을 활용하면 인력을 활용한 점검보다 점검 시간이 90% 정도 단축되고 하루에 점검이 가능한 설비 수량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7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한전은 올해 전국에 총 4만 2372기의 철탑가운데 드론을 통해 철탑 1만기에 설치된 OPGW를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철탑 3만기의 OPGW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박삼구 회장, 연내 금호고속 되찾는다

금호터미널 사모펀드 칸서스KHB로부터 지분 되사기로

하반기 M&A 시장 최대어로 주목되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앞두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금호고속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재계에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앞서 그룹의 모태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금호고속을 되찾아 그룹을 안정화하고, 이를 토대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해 그룹 재건의 마지막 과제를 풀겠다는 수순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금호터미널이 사모펀드 '칸서스KHB'에 3900억원을 받고 매각했던 금호고속 지분 100%를 되사기로(몰입형 행사) 결정하고 최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인수건은 아차피 자금조달 등 세부 과제가 내년쯤이나 진행될 것”이라며 “지금 부담이 작은 금호고속은 연내 인수를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인수금액은 총 4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 주체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금호터미널이다. 금호터미널은 지난해 6월 IBK투자증권 계열 투자회사인 'IBK-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PEF'에서 금호고속을 3년 만에 매입했지만,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칸서스KHB에 팔았다. 당시 금호터미널은 2년3개월 내 금호고속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에 앞서 금호고속을 되찾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고속을 인수하면 금호터미널과 더불어 그룹 지주사인 금호기업에 흡수합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호고속 재인수 추진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 일정은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최근 첫 주주협의회 실무자회의를 열고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채권단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박 회장은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 금액을 1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셋강 다슬기 성업중!!

셋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총담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총담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총담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 · 수제비 · 초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셋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사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화순읍내 만연폭포 큰재수만리

셋강 다슬기